

월/요/광/장

박선정



실려있는 김홍도의 풍속화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기분으로 관람할 수 있다. 우리의 삶도, 무대도 결국은 한 쪽의 그림에 불과한 것임을 말하려 했을까. 영상그림과 함께 무대위에서 현란하게 펼쳐지는 김홍도의 예술세계 속에서 한국적 정신과 형식미를 발견하게 된다.

가을이 오자 간송의 문은 활짝 열렸다. 이전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린 자발적 가디립. 1시간은 기본이고, 주말에는 3시간씩 줄을 서더라도 기어코 옛그림을 보겠다는 관객들의 열기로 서울 성북동 간송미술관은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그는 우리 옛그림을 옛사람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하나의 생명체로 보았다. 한 인간의 혼이 오롯이 담긴 살아있는 존재로 대한 것이다.

봄과 가을, 1년에 두 번 딱 2주씩만 열리는 간송미술관의 옛이름이 '보화각'이니 이를 그대로 보배들의 우리 문화유산을 울곧게 지켜온 그곳은 어느덧 한국미술사의 성지가 되었다.

이 가을에 간송미술관 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선시대 초상화의 비

늦가을의 옛그림 단상(斷想)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강원도아리랑 등 우리 전통음악을 텍스트로 해서 전통악기와 서양악기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무대 위에 옛그림들이 너울대며 춤을 추고 있다. 해금 선율이 가지고 있는 넉넉한 호흡과 가야금의 절제미 속에서 옛그림은 한편의 서정시 같은 매력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왜 옛그림에 열광하며 해원과 단원을 무대 위로 부르고 있는가. 45년째 간송미술관을 지키고 있는 한국민족미술연구소 최완수 연구실장의 답은 명쾌하다. 우리의 문화적 자존심과 자긍심

나를 간송으로 이끈 멘토는 고(故) 오주석 선생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의 책이 있다. '한국의 미' '보화각', '옛그림 읽기의 즐거움', '그림 속에 노닐다' 등 그의 뛰어난 문장력에 의해 재해석된 옛그림의 가치는 고단한 삶을 위로한 처방제였다.

그런데 고미술이 음악과 만나 무대에 올려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공연예술을 대표하는 국립극장의 창극단, 무용단, 국악관현악단이 합심하여 2011년 국가브랜드공연으로 제작한 가무악극 '화산(火山) 김홍도'는 고미술을 또 다른 예술공간 속에서 새롭게 창조했다.

이런 간송의 '풍속인물화대전'의 백미인 해원 신선복의 '미인도'나 '월화정인도' 등 '해원전신첩'에 실린 대표작들에 대한 그의 탁월한 해석을 보라. 정신이 번쩍 들고 무릎을 치면서 마침내 그를 사랑하지 않고는 당해낼 재간이 없게 될 것이다.

법조칼럼



강남석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이 있다. 한 비자에 나오는 이야기로 '세 사람이 말하면 있는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는 말이다. 옛날 춘추전국시대 위(魏)나라 혜왕 때의 일로 위나라는 관례상 조(趙)나라에 인질로 태자와 수행원을 보내야 했는데, 이때 수행원으로 방공(龐公)이라는 중신이 선발되었다.

진실과 거짓 분별하기

한다면 그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러자 왕은 대답하였다. "물론 안 믿소." 방공이 재차 물었다. "왕이시여, 그러면 두 사람이 와서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왕이 또 대답하기를 "안 믿소." 방공이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세 사람이 와서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러자 왕은 대답하였다. "나는 그 말을 믿소."

처벌을 감수하고 범행을 자백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자백이 신빙할 수 있는지 즉 믿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살펴본다. 수사기관은 범인이 자백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모해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자백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기고



신종해

단풍 들어 산천이 아름답다. 사람들은 휴일이면 저마다 바쁜 일손을 접고 산행을 한다. 떨어진 가을바람에 뽕구는 낙엽을 밟으며 정상에 올라 지평선 너머 가을 하늘 아래 펼쳐지는 첩첩산중의 웅장함과 끝없이 펼쳐진 다양한 색상의, 동양화 한 폭을 바라본다.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마라

봄에는 새싹으로 희망을, 여름은 왕성한 활동으로 녹음을, 가을이 되면 파란 잎이 단풍으로 변해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그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는 겨울을 맞이한다. 앙상한 나뭇가지보다는 녹음이 짙은 나무가 더 좋다.

보다 더한 어려운 짐을 이겨낸다. 그리고 자녀가 성장하면 정작 본인은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볼품없는 노년을 맞이한다. 앙상한 나무보다 잎이 무성한 나무가 더 보기 좋듯이 사람도 가장 활동력이 많을 때, 열심히 일을 할 때 인생의 가장 보람된 시기가 된다. 그러나 요즘은 남녀 할 것 없이 생각과 문화가 바뀌어 옛날보다 편리함과 수월성을 더 추구한다. 어려움을 극복할 의지도 약하다. 가능한 짐을 지기 싫어한다.

'콜레스테롤 오해' 풀린 계란 먹고 양계농가에 힘되자

심장병이 있거나 비만이거나 혹은 혈압이 높은 사람이 병원에 가서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있다. 그것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 계란 같은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 계란이 심혈관계 질환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계란 섭취가 심장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양계협회가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지난 50년간 미국, 일본, 유럽 등의 학술논문과 자료를 분석하고 실험동물을 이용한 자체실험결과를 내놓은 것이니만큼 그 연구 결과가 맞을 거라고 본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이런 계란 섭취량에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지

시설

지역정치권, 국책예산 확보 사활 걸어야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하는 핵심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시·도가 요구한 내년 현안사업 상당수가 정부예산안에 빠지거나 삭감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 살리기'에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의 각별한 분발이 요구된다.

지역균형발전 등 정부가 거부할 수 없을 논리로 무장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엔 투쟁을 해서라도 예산을 살려내야 할 것이다. 또 협상 과정에서 여당의 핵심 예산을 압박하면서 가능성 있는 사업 예산부터 확보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누락되거나 삭감된 현안사업은 22개, 전남 31개 등 무려 55개나 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지역 정치권은 과거처럼 지역 예산 확보에 소홀히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의원들은 지역 예산 살리기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다.

우선, 전남도가 내년 F1 대회 개최를 위해 정부에 요청했던 운영비 300억 원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국가직업인 F1을 정부가 외면하는 것은 국제대회 성격으로서나 국가균형발전과도 위배되는 일이다. 게다가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사업, 한옥 건축박람회 개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광주~완도 간 고속국도 등 중요 사업도 대거 누락됐다.

이들 사업은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사업이라는 점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

전남지역 공사 67%가 외지업체 몫이라니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진행된 공사 물량의 3분의 2 이상을 타지역 건설업체가 싸 싸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건설협회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전남에서 진행된 공사 규모는 총 8조6054억 원으로, 이 가운데 전남 소재 건설업체가 시공한 공사액은 33.3%인 2조8656억 원에 그쳤다. 나머지 66.7%는 외지업체가 챙겼다. 지역업체는 '들러리'로 전락한 셈이다.

내 대부분의 대형공사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실시하고 있어 자분력이 부족한 지역 건설업체는 입찰 참여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남지역 건설업체의 지난해 기성실적은 7조5711억 원으로, 2009년(8조2121억 원)보다 7.8% 감소했다. 광주지역 건설업체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기성실적은 1조1496억 원으로 전년(1조2589억 원)보다 8.7%나 줄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반이 취약한 지역 건설수주 감소는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미 4~5년 전부터 지역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위기에 직면했고, 중경건설업체가 잇따라 도산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해 4대 강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지역 건설업체로서는 엇친 데 덮인 격이다.

문제는 지역 내 발주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수주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건설사의 65.1%가 1년 동안 아예 실적이 없거나 50억 원 미만 수주하는데 그친 것이다. 이는 지역

정부와 지자체 등 당국은 지역 건설업체의 위기를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 지자체 별 공공 공사 발주 확대, 대형 건설사와의 협력체제 강화, 대규모 공사의 분리 발주 등 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지역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최저가 낙찰제를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로마 나보나광장 인근에 위치한 판테온(Pantheon)은 그리스어로 모두를 뜻하는 '판'(Pan)과 신을 가리키는 '데온'(Theon)이 합쳐진 것으로 '모든 신들의 거처(萬神殿)'를 의미한다. 르네상스시대 무덤으로 사용되면서 왕들과 화가 라파엘로, 카라치 등이 이곳에 묻혀있다.

의 정치적 공과와 안장의 정당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기간인 셈이다. 국가 최고 권력자라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나 드골이나 콩피우, 미테랑 대통령도 이곳에 묻히지는 못했다.

프랑스 파리 세느강변의 판테온(Pantheon de Paris)도 여기서 유래했지만 공간의 성격은 사뭇 다르다. 로마처럼 신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위대한 공로를 세운 위인들을 합사(合祀)하는 영묘(靈廟)다. 프랑스대혁명 기간에는 혁명가 미라보와 마라를 비롯 사상적 자유분을 제공한 볼테르와 루소 등이

12·12 군사반란의 주역으로 5·18민중항쟁을 진압한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의 대전현충원 안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5·18기념재단 조사에 따르면 안 전 경호실장의 예도 12·12, 5·18 관련자 6명과 친일인사 76명이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고 한다.

판테온



자연스럽게 걸음걸이가 수그러지고 허리가 굽어진다. 자꾸 시선이 아래로 향한다. 짐을 지고 기고만장 날릴 수 없다. <선광학교 교장>

관려자 6명과 친일인사 76명이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고 한다. 지난해 31일 범법 전과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한 재 결정이 나온 것은

그나마 미라보는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에 매수돼 루이 16세의 복위를 위해 내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판테온에서 축출됐고, 마라 역시 비슷한 전철을 겪었다.

이후 이곳에 안장되려면 사후 10년이 지나야한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대상자

그나마 미라보는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에 매수돼 루이 16세의 복위를 위해 내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판테온에서 축출됐고, 마라 역시 비슷한 전철을 겪었다.

이후 이곳에 안장되려면 사후 10년이 지나야한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대상자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circulation, advertising, and subscription.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